

중동 30년 경륜... 신재생 에너지로 '글로벌 리더' 도약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조 봉 구 코리아머신 회장

전기지게차·수소등 새 비즈니스 구상 경쟁서 살아 남기 위해선 '글로벌' 답 후진 양성위해 중동 씽크탱크 참여 키코 공대위, 기업회생협회 이끌어 '금융소비자 운동' 주도한 장본인

199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갔으니 중동을 오간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출장 횟수만 200여회가 넘는다. 그 사이 쌓인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60만 마일에 달해 최우수 회원인 '밀리언 마일러'가 됐다.

"사우디는 지금 원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많다. 태양광도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수소발전소도 여러 곳에 들어서고 있다. A에서 Z까지 수소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기회가 많다. 현지에서 30년



조봉구 코리아머신 회장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가량 쌓아온 인맥과 신용 등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

코리아머신 조봉구 회장은 요즘 신이 났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많은 수출 강소기업들을 나락으로 몰았던 키코(KIKO) 사태가 터진 후 그는 키코 피

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다. 역시 키코에 망가진 자신의 회사 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기업인들을 보듬고 선봉에 섰다.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이었다.

이후엔 한국금융소비자협회장, 한국 기업회생협회장 등을 잇따라 역임하며

금융소비자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돌고 돌아 이젠 온전히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코리아머신의 전신인 코막(KOMAC)을 창업했던 97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 수 있는 길은 '글로벌' 밖에 없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글로벌이다. 중동과 미주, 그리고 인도차이나 지역은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든든한 시장이 될 것이다."

조 회장은 본업인 중장비와 관련 기능품 수출을 위해 현재 사우디, 인도 등에 합작을 통한 생산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이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변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야드와 두바이엔 사무실을 두고 거점도 이미 마련해 놨다. 지난해 코리아머신은 제품의 90% 가량을 해외에 수출했다. 여기에 리빌드 굴착기, 콘크리트 펌프트럭, 휠로더, 전기지게차, 발전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도 넓혀나가고 있다.

자칭 타칭 중동전문가인 조 회장은 최근엔 중동 분야 전문가들이 만든 씽크탱

크인 '좋은열쇠'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자를 육성해 현지 경영 체제 구축을 돕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동참하게 됐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글로벌을 위해선 직접 부딪쳐야 한다. 맨땅에 헤딩하며 기업을 운영해왔던 나의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 회장은 최근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동종업계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던 인재도 영입했다. 전문가 등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리아머신은 10년 후엔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화가 돼 있을 것이다. 회사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기위해선 결국 글로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에서 오픈 마인드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닫혀 있고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조 회장은 라마단이 끝나는 이달 말엔 다시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 조선·방위산업 글로벌 확장 본격화

호주 오스탈 9.9% 지분 인수
美·호주·韓 협력 경쟁력 강화

한화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 및 방위산업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하며 주요 주주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17일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을 직접 매수했다. 오스탈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해당 지분 외에도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신용과 생상품으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에 연동된 수익 손실



오스탈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 전경. /오스탈홈페이지

만 수취하는 금융 계약이다.

이날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오스탈에 대한 19.9% 지분 투자 관련 승인도 동시에 신청했다. 이번 투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지분 60%와 40%를 보유

한 호주 현지법인을 통해 진행했다.

한화는 이번 오스탈 지분 인수를 통해 한국,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서 한화는 작년 12월 한국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오스탈은 서호주 헨더슨과 미국 앨러바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 조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주잔고는 142억 호주달러(약 13조718억원)에 달한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 시장점유율 40~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알루미늄 중심 수주에서 최근 강철선 건조 체제로 전환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MSCI ESG 평가 'BBB'
환경·거버넌스 개선 성과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 리캐피탈인태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 'BBB'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BB'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특히 탄소 배출 감축, 유해물질 관리, 클린 테크 기회 창출 등 환경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중심 위원회 신설 등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업황 둔화 속에서도 ESG 등급이 상승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가능경영을 더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매출 성장률 6%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최대 40% 등 3대 목표와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2' 대형공간 성능 강화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 탑재

코웨이가 청정면적을 다양화한 '노블 공기청정기2'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노블 공기청정기2는 조형적 디자인과 자연의 소재를 모티브로 구성된 5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2021년 첫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최근 노블 공기청정기의 프리미엄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혁신적 청정 기술로 제품 크기는 줄이고 성능을 강화한 대형 청정면적의 100㎡, 133㎡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53㎡, 67㎡에 이어 넓은 공간도 관리 가능

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공용·상업시설까지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넓은 청정면적의 노블 공기청정기2(100㎡, 133㎡)는 코웨이만의 필터 기술력과 청정 솔루션으로 제품 크기는 최대 35% 줄이는 동시에 넓은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공용 시설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대용량 공기청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로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은 코웨이만의 혁신적 청정 솔루션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어느 공간에서도 빈틈없는 청정력을 자랑한다.

/김승호 기자

SK일렉링크 "전기차 충전 크레딧 안심 판매"

업계 최초 전자금융업 등록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후 업계 최초 등록이다.

전자금융업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인정보 보안수준, 선불 충전금의 별도 관리, 일정 규모의 전문 전산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등 금융감독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허가된다. SK일렉링크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높은 경쟁력을 증명했고 사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